

시민 축제로 흥행 이끌고 문화행사 연계 효과 극대화



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 이끈다

5 성공 개최 관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7월 12일~8월 18일)의 성공개최 열쇠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 기업 후원을 늘리는 것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국제 체육행사인 만큼, 시민 축제 대회를 진행하면서 흥행을 이끌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21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회의 파급효과는 하계 올림픽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조직위가 예상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 규모는 1만5000명 가량이다. 이는 2012런던 올림픽 참가자 2만6000여 명보다는 적지만 대회 개최 기간은 31일간으로 하계 올림픽의 17일간보다 훨씬 길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1년 대구)의 경우 9일간 개최됐고 참가자가 6800여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세계수영선수권은 지역 발전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한 국제행사다.

특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이어 마스터즈선수권이 차례로 치러지기 때문에 1만5000여 명이 31일간 내내 광주에 머무는 것도 매력적인 요소다. 마스터즈선수권대회 참가자(예상 8000명, 목표 1만명)들이 대부분 가족과 함께 휴가를 겸해 오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영선수권대회는 전 세계 10억명에 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기 때문에 기업이 브랜드 홍보를 위해 선호하는 대회이기도 하다.

조직위 관계자는 "수영대회는 하면 이동이 천천히 진행돼 타 종목에 비해 브랜드 노출에 의한 광고 효과가 크다"면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생중계 시간은 2009년 로마 대회 3509시간, 2011년 상하이 대회 4434시간, 2015년 카잔 대회 5728시간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실제, 직전 대회였던 헝가리 부다페스트

전세계 10억명에 TV 생중계

기업 후원·입장권 판매도 중요

북한 참가엔 '평화 대회' 이정표

대회의 경우 전 세계 177개국에서 선수 2303명과 임원 1912명, FINA 패밀리 1279명, 1611개 미디어와 방송 등이 참여했다.

마스터즈대회 등록자수는 1만2000명에 달했고 대회기간 48만 명의 관객이 경기장을 찾아 수영 마스터들의 경기를 직접 관람했다. 201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회에는 전 세계 181개국에서 모두 2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209개국에서 대회를 중계했고, TV 누적시청자는 5억1000만명에 달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회는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열려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석할 경우, 한반도 평화를 이끄는 이정표로 기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내의 기업의 도움이 절실하다. 또한 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의 문화와 대회를 연결하는 등의 전략도 필요하다. 부다페스트 대회의 경우에도 유럽 최대의 락페스티벌과 F1대회, 불꽃축제 등의 문화행사와 축제를 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대회를 병행 배치해 집객 효과를 극대화했다.

대회 성공을 위해 기업 후원을 유치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조직위는 FINA 후원사인 니콘, 아쿠르트, 아레나, 빙썬, 오메가, 삼성 등 9개사를 제외한 국내스폰서, 국내서포터 등 후원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입장권 판매에도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조직위는 입장권 중 국내에서 80%(30만매)를, 해외에서 20%(6만9000매)를 소화할 방침이며, 지난 2일 개·폐회식을 포함한 6개 종목 90세션(경기)에 대한 입장권 판매를 시작했다. <광>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1일 오전 전남 목포시 만호동 거리에서 만호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차질없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촉구하며 건강한 구도심 살리기 운동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목포 원도심 주민들 "도심재생 차질 없어야"

시민단체 목포포럼 "소모적 논쟁 즉시 그쳐달라" 촉구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무더기 매입 의혹과 관련해 원도심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차질 없는 도시재생사업을 촉구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원주민들이 다수 포함된 만호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1일 오전 목포시 만호동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근대화사업 사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주민 40여명은 "지금까지 삶의 터전을 지켜오며 저변에도 불이 켜진 동네로 만들고 싶은 우리의 노력을 소중하게 생각 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목포 구도심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참여와 감시를 할 것이다. 목포 구도심 살리기 운동본부 결성해 지역과 주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

들의 서명을 받았다.

시민단체인 목포포럼도 이날 오후 2시 목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겨우 목포 원도심이 재생되는 시점에 이 문제가 다른 모습으로 비화해 목포의 역사문화 공간 활성화 사업이 위축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목포 역사문화 공간 활성화 사업은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포포럼은 "투기의 진위는 팩트에 근거한 판단이 따라야 하지만 정쟁이나 논쟁을 우선하는 소모적 행위는 즉시 그쳐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목포 시민을 분열시키려는 어떤 외부세력의 개입도 거부하며 지역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목포의 역사를 간직한 원도심의 역사문화 공간 사업이 성공해 낙후된 지역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연합뉴스

목포시, 서산온금지구 보존·개발 상생 모색

조선내화 추가 문화재 등록 신청서 보류하고 해법 중재

목포시는 서산온금지구와 관련해 현재 재개발 조합과 조선내화(주) 양측의 상생 협력 방안을 찾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서산온금지구는 조선내화의 등록 문화재 보존·활용과 재개발 조합의 공동주택 형태 개발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충하기 쉬운 2가지 가치가 함께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조선내화 목포공장은 보존이 필요한 산업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7년 12월 문화재로 등록됐다. 여기에는 1938년 이후 수십 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고통이 뒤따랐다.

상황이 이렇게 때문에 신속추진이라는 명분으로 성급하게 어느 한쪽으로든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 분열을 유발하고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문제해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다

라도 양측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해법을 찾자는 입장이며, 조선내화가 제출한 두 번째 문화재 등록 신청서를 일단 보류하고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있다.

시는 양측의 책임 있는 당사자 간 논의를 현재까지 2차례 (2018년 11월, 12월) 진행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다면 조선내화의 문화재적 가치 보존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주민 숙원의 동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산온금지구 개발은 거주 주민과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사업이 돼야 한다"며 "목포 전체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문화재 보존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이 함께 이뤄지는 상생의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연합뉴스

정태호 일자리 수석 "광주형 일자리, 외국 진출 기업 국내 유턴에 도움 될 것"

유시민의 '알릴레오' 출연

현대차·노조 조속 타협 기대

정태호<사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광주형 일자리가 '리소어링(외국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유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지난 1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 "광주형 일자리는 10만대 완성차를 생산하는 프로젝트인데 부품업체까지 결합하면 직간접 고용이 1만명 이상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정 수석은 이날 방송에서 "현대차가 국내에 공장을 지은 마지막 해가 1996년"이라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완성되면 현대차가 23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에 공장을 지음으로써 리소어링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외로 나간 일자리를 국내로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현대차와 노조 간 타협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유 이사장은 "광주형일자리라는 임금 수준이 기존 자동차공장보다 낮고, 기업에 대해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할 수 있는 지



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며 "또 생활 상의 요구가 임금상으로 집중되지 않기 위해 교육·보육·공공서비스를 같이 결합해 넣었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지난번 거의 합의직전까지 갔다가 조항 딱 하나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지금 열심히 협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다"며 "광주형 일자리 되면 뭔가 큰 전환점이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가 있다"

고 강조했다.

한편, 정 수석은 경남 사천에서 태어났으며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대 2학년 때 학생운동을 했고 1980년대 두 차례 투옥돼 모두 3년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1991년 당시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과 정부비서관 등을 지냈으며,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정책 기획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6월부터 일자리 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호남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사진은 최근 광주 동구청에서 열린 수영대회 성공기원 결의대회 모습.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한 번 시공으로 고민 끝!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